

34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1~15

제자들은 예수님께
서 주신 보리떡과 물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빈 들판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불쌍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자들: “주님, 날이 저물어서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백 ¹⁾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안드레: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¹⁾데나리온 : 어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돈 (약5~8만원)

성경 암송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35)

예수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은 후에도 열두 바구니가 남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어른만 오천 명이나 되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 “참으로 이분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저녁 때가 되어 배가 고픈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다음 빈 칸에 제자들의 말을 써 보세요.

빌립 :

안드레 :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먹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것은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단 한 끼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어린이의 작은 음식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다음 예화를 읽고 물음에 대답해 보세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1페니(20원)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꼭 신약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지만 이 소년의 마음을 귀중하게 여긴 그 교회 목사님은 돈을 조금 보태어 아주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사서 그 소년의 싸인과 함께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이 목사님은 인도에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은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주며 전도한 후로부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낡은 자그마한 신약성경의 마지막 표지에서 20년 전 자기 교회의 5살 된 소년의 싸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작은 돈이지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소년이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소년은 하나님께 작은 돈을 드렸지만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 돈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천국에서 상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 보세요.

저는 헌금을 주일마다 500원씩 꼭 할 거예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빠 구두를 깨끗이 닦아드릴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 ☐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 ☐ ☐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예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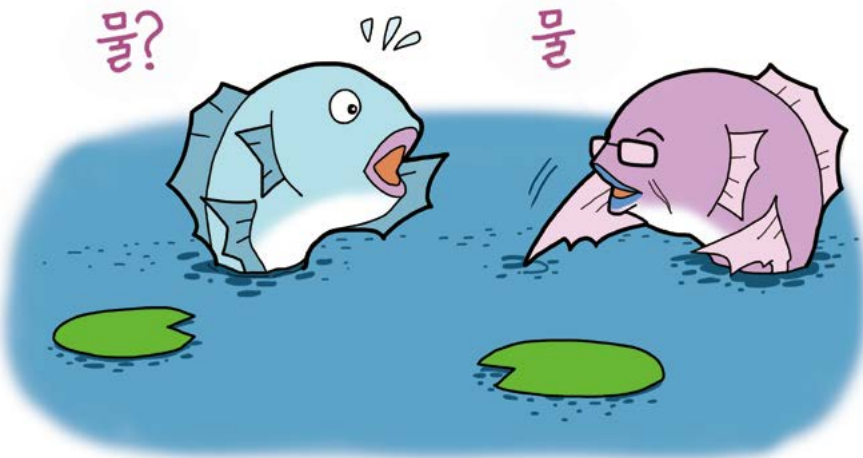
물과 물고기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물고기들이 한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이야기였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 그 물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늙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혀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네."

숲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를 모르고,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표류자가 그 바다를 모르듯 인간은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고 있다.





알아볼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요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는 나라의 왕인 줄 알지 못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준다면 저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마침 옆집에서 강냉이 한 주머니를 얻은 그는 주머니에서 다섯 알의 강냉이만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은 왕은 하인에게

"여봐라, 금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알만한 금덩이 다섯 개를 저 사람에게 내주거라."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놀라며 금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왜 내가 강냉이 주머니 전체를 드리지 못했을까?"라며 탄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